

##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를 위한 시론

이상일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제1 저자)

김승현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공동저자)

양수연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강의부교수(공동저자)

이관희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공동저자)

이지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시간강사(공동저자)

조진수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공동저자)

호창수 육군사관학교 국어철학과 조교수(공동저자)

정진석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3036354).
- \*\* 본 연구는 청주교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음(IRB No. 2025CJE-3).
-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84회 전국학술대회(2025. 4. 19.)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I. 국어교육사의 지평 확장: '문헌'에서 '실천'으로
- II. 국어교육에서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
- III.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성격
- IV.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범주
- V.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절차
- VI. 목소리로 다시 쓰는 국어교육 실천사를 위하여

## I. 국어교육사의 지평 확장: '문헌'에서 '실천'으로

국어교육사(國語教育史) 연구는 국어교육의 담론과 현상 중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그 의미와 연관성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는 작업이다(우한용, 2009: 1). 이러한 학문적 탐구는 단순히 과거의 국어교육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조망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든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간 국어교육사는 국어교육 연구의 한 범주로서 꾸준히 논의되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국어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그 내부의 논리를 함께 고려하여, 교육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어교육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기존 국어교육사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국가 수준에서 국어교육의 방향과 설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공신력 있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수업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헌 자료만으로는 특정 시기 국어 수업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그 통시적 변

화 양상과 같은 ‘실천사(實踐史)’를 온전히 조명하기 어렵다.

국어교육의 실천에 관한 탐구가 진무했던 것은 아니다. 2010년대부터 교사의 국어 수업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수업 비평 연구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수업 비평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녹화 등을 통해 수업의 보존이 수월한 현대에 한정될 뿐, 그 이전의 국어교육, 특히 현대적 국어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국어교육 초창기<sup>1)</sup>’의 수업 실천 양상을 탐색하는 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어교육 실천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강석, 2013: 226; 김창원, 2011: 131-132; 정진석, 2010: 328), 초창기 국어 수업의 실천사는 여전히 학문적 탐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어교육사 연구의 지평을 ‘기획된 국어교육’의 거시사(macrohistory)에서 ‘실천된 국어교육’의 미시사(microhistory)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으로 ‘구술사(oral history)’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술사는 ‘사람의 기억과 경험의 전승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도구이자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공식적 기록에서 소외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과거의 삶과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정연경, 2022: 13-14).

교육학 분야에서는 구술사의 방법론을 통해 공식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당대의 교육 현실을 복원하는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초등학교의 수업 및 운영 일반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여 분석하거나(권성기, 2010; 유수정, 2009; 전미란, 2007; 장효주, 2009), 교사의 교직 사회화, 교육 운동 등과 관련된 사건과 인식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박진섭, 2008; 김정은, 2008; 정진화, 2013). 다만, 특정 교과와 수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음악교육이나 환경교육 등에서 소수의 연구물이 제출되었을 뿐 그

---

1) 이 논문에서 ‘국어교육 초창기’는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된 ‘제1~3차 교육과정기’, 즉 1950~1970년대를 이른다.

성과가 미비한 편이다(문경숙, 2017; 장미정, 2011). 특히, 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비제도적 방식의 한글 교육을 다룬 연구(강연진, 2020)를 제외하면, 구술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국어교육 실천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이 논문은 국어교육사 서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학문적 시도로서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먼저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과 특성을 논하고, 다음으로 국어교육의 실천사를 구술사의 방법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의 범주, 대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망각의 저편으로 잊혀져 가는 국어교육 실천사를 복원하기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국어교육에서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

### 1. 문헌 중심 연구의 한계 극복

국어교육사 연구가 교육과정·교과서 중심의 문헌 연구에 집중하면서 국어교육의 실천사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대적 국어교육의 초창기는 상대적으로 문헌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과다한 학생 수나 기자재 미비 등의 열악한 교육 여건 때문에 실제 국어 수업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문면대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경험 중심 교육과정기에서 강조된 전화, 영화,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이나, 실용적 글쓰기로서의 서식 작성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었는지는 문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시 국어 수업의 교수자였던 교사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경험과 기억은 국어 수업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고 당대의 국어교육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된다. 국어와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했던 경험, 당대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와 성찰 등 교사들의 증언은 공식적 기록 너머에 있는 실천의 역사를 복원하는 결정적 열쇠이다.

이처럼 구술사 연구는 문헌 자료의 한계를 넘어, 국어 수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연구의 시선을 옮기는 작업이다. 교사들의 구술 기록은 통계, 법령, 정책과 같은 정적인 문헌 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의 구체적인 체험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획된 교육과정’과 ‘실현된 교육과정’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초창기 국어교육의 실질적인 모습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 망각 속에 사라지는 경험과 기억의 채록 필요성

구술사 연구의 또 다른 필요성은 시급성에 있다. 특히 제1차~2차 교육과정기인 1950·60년대 국어교육의 모습을 증언할 수 있는 구술자들은 대부분 1930년대생의 고령자로, 이들의 귀중한 경험과 기억은 “망각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멸해 가는 현실”(박현수, 2005)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초창기 국어교육의 생생한 모습이 망각으로 사라지기 전 이를 채록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문적·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구술자의 희소함은 연구의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구술사 연구를 시작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풍화되고 증언의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은 문헌 연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초창기 국어교육의 실상과 이면을 실천사의 차원에서 조명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따라서 당대 국어 수업에 대한 구술 기록의 작업은 망각의 어둠으로 사라질 국어교육의 풍경을 보존하고 그 유산을 전승하는 행위와 같다. 한 시대

의 국어교육에 투신했던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은, 미래 세대가 국어교육의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재의 교육을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학문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 3. 국어교육사 연구 지평의 확장

구술사 연구는 국어교육사 연구의 지평을 ‘기획된 국어교육’의 거시사에서 ‘실천된 국어교육’의 미시사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어교육사는 국어교육학의 초창기부터 꾸준히 연구된 분야이다. 이응백(1975, 1988)과 박봉배(1987; 1997 ㄱ; 1997 ㄴ)는 교육과정, 교과서, 학술서 등의 기초 자료를 목록화하고 서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특히 이들 연구는 국어교육 내 하위 영역의 분화 과정이나 영역별 교과서의 발행처 및 시기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국어교육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한국어교육학회편찬위원회(2005), 윤여탁·김광해·신현숙 외(2006), 민현식·윤여탁·김종철 외(2007) 등은 국어교육의 역사를 정책, 교육과정, 학술 담론 등의 측면에서 다원적으로 접근하며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였고, 기술의 범위도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해석과 평가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화법, 독서, 문학 등 영역별 교육사 연구도 심화되었다(강석, 2009; 김경주, 2013; 우한용, 2009; 정재찬, 1996; 정진석, 2010; 허재영, 2013; 이상일, 2016).

그러나 이러한 국어교육사 연구의 지평 확장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와 방법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중심의 문헌 연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교육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 녹취록, 수업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의 자료가 그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지 못했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근거한 연구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 수준에서 설계된 교육의 구조와 거시적 흐름을 살피는 데는 성과가 있었으나, 교실이라는 구

체적인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 교육의 실제 모습, 즉 미시적 실천의 국어교육사를 탐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미시사적 접근은 통계, 법령, 정책 등의 문헌에서 정적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던 수업의 실상을 개인과 공동체의 살아있는 체험 차원에서 생생하게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사 개인의 교육적 신념이 국어 수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당시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국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다층적인 맥락을 포착함으로써 국어교육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구술사 연구를 통해 축적된 실천의 기록들은 과거의 국어교육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국어교육을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통찰의 원천이 될 것이다. 과거 교사들의 고뇌와 실천적 지혜는 오늘날의 예비 교사와 현장 교사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는 국어교육 공동체 전체의 학문적 자산을 풍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 III.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성격

국어교육 분야에서 구술사 연구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술사 연구는 노동자, 여성, 원주민 등 소수자의 일상사에 주목한 사회학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그 성과가 두터워진 방법론이다(정혜경, 2017: 337-338). 국어교육 실천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 구술사 연구가 지니는 특성은,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자료, 분석 방법'의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연구 목적의 차원

구술사 연구의 목적은 국가나 제도와 같은 거대 담론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개인의 삶과 경험을 복원하는 데 있다. 이는 역사의 주체를 엘리트나 지배 계층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옮겨오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지향하며,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간과되었던 미시적 실천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구술사 연구는 추상적 담론이나 구조가 아닌 구체적인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은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의 국어교육사 연구가 교육, 어문, 사회의 지배 담론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천이라는 거시적 흐름에 주목했다면, 구술사 연구는 교실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교사 개인의 수업 행위뿐만 아니라 교과 협의회나 교무 회의 등을 통한 교사 간 협의와 갈등, 학생의 학습 행위나 교과 외 활동, 학부모의 학교 체험, 교사나 국어교육 전문가의 교과서 집필 등을 포함한 수업 자료의 개발 경험 등 교육적 실천이 일어나는 다양한 공간의 경험과 인식 등을 복원하는 미시사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의 관심이 '제도'에서 '개인'으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이동한다.

이를 통해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의 추상화된 언어를 넘어 개별 교사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 살아있는 교육 실천의 의미를 탐색한다. 추상적인 교육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 경험, 즉 교사가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을 만나 특정 텍스트를 가르치며 겪었던 보람과 좌절,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국어교육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인간적인 서사로 채워나갈 수 있다.

## 2. 연구 대상의 차원

구술사 연구의 도입은 국어교육사 연구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어교육사 연구의 전통적인 분석 대상은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학술 서적 등 문헌의 형태로 남아 있는 이론적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문헌 중심 연구는 국어교육의 지식 체계나 담론의 변화를 조명하는 이론사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구술사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텍스트에서 인간의 경험으로 전환한다. 즉, 문서화된 이론이 아니라 교사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생생한 ‘실천’의 과정을 핵심적인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국어 수업을 위해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했던 경험, 가르칠 작품을 분석하고 판서할 내용을 교과서에 기록한 경험, 시험 문제를 내고 학습자의 역량을 평가한 경험 등 문헌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던 다양한 교육적 실천들이 비로소 연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국어교육사를 ‘경험 중심의 실천사’로 재구성하는 길을 열어 준다. 연구자는 더 이상 문헌의 행간을 읽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교사들의 구술을 통해 당시 수업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특정 단원을 가르치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동료 교사들과는 어떤 논의를 나누었는지 등 실천의 구체적인 맥락과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이는 국어교육의 역사를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3. 연구 자료의 차원

연구 자료의 차원에서 구술 기록은 문헌 연구만으로는 결코 확인하기 어려운 실체와 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술자의 구술 기록은 통계, 법령, 정책 등의 공식적인 문헌 연구에서 추정될 수밖에 없던 국어 수업의 실상을, 개인과 공동체의 구체적인 체험 차원에서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공식 문헌이 정제되고 의도된 기록이라면, 구술은 개개인이나 공동체의 기억에 보존된 경험의 조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기록물이나 문헌이 미비한 시대와 공간에 대하여 분석할 때는, 구

술자의 구술 기록이 그 시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결정적 자료가 된다. 국어교육의 초창기 교사들이 들려주는 국어와 교육에 대한 관점, 수업 준비 및 실행 경험, 당대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와 성찰 등은, 문헌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국어교육의 실상과 이면을 드러내 주는 대체 불가능한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구술자] 대학 들어가고 3차 교육과정까지 나는 교사를 했는데 … (중략) … 그 시절 생각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막 얘기할 수 없지만, 참, 교사들이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런 분위기가 교무실에 짙 깔려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깐 저녁에 별 보고 가는 거는 뭐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해서 ‘난 왜 퇴근 시간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 (중략) … 그랬는데 거기서 친구 하나가 이제 서울서 하던 친구들 그 양반이 시골로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 인천에서 있다가 시골 가면 너무 불쌍하니까 애들을 위해서 그냥 돈 안 받고 해준 거예요. 저녁에 그냥 밤늦도록 애들이 안 한다는 걸 억지로라도, 그래야 좋은 학교 간다고. 옛날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대학 가기가. 근데 끝나고 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실내화 훔쳐 가지고 갔더라.

- 제3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4. 11. 22. 대전 한식당, 구술자: 김○규, 면담자: 연구자)

이러한 구술 자료는, 때로는 문헌 자료의 보완재로서, 때로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역사적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남아 있지 않은 교사의 비공식적 교육 실천, 개인적 고뇌, 교육사회적 상황, 교실의 분위기 등을 포착해 낼 수 있다. 이는 국어교육 실천사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구술사 연구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 4. 분석 방법의 차원

분석 방법의 차원에서 구술사 연구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경험과 인식을 통해 의미화된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을 밝히는 것을 지향한다. 구술 자료는 주관성, 기억의 한계, 서사화의 왜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그 신뢰성을 비판받기도 했다(윤택림·함한희, 2006: 50-55). 구술이 개인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구술사 연구는 서사학의 분석 방법을 원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오히려 연구의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구술사 연구는 구술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는지, 즉 서술 방식, 어법, 침묵과 망설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한다. 객관적으로 틀린 진술이라 할지라도 구술자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심리적 진실'이며, 말해지지 않은 것, 혹은 숨기는 것과 그것을 숨긴다는 사실 자체가 현상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정연경, 2022: 42-46).

결론적으로 구술사 연구는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서사적 진실'의 차원으로 수렴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하는지에 주목한다.<sup>2)</sup> 이를 통해 주관성, 서사성, 맥락성이라는 구술 자료의 본질적 특성은 경험의 복합적인 맥락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구술사 연구만의 고유한 강점이자 독자적 가치가 된다.

---

2) 이러한 관점은 자서전의 진실을 성실성이 아닌 진정성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서전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미학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독자는 그러한 배열의 맥락을 살피며 기록된 행적을 해석하고 저자가 드러내려는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유호식, 2015: 68-69; 정진석·정대영, 2021: 58).

## IV.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범주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는 구술의 범위와 분석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업, 평가, 자료 개발 등 국어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을 탐구하는 연구로, 이는 구술사 연구의 주제사적 접근(topical histories)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실천에 참여한 교사나 학생 등 '실천 주체'를 탐구하는 연구로, 이는 생애사적 접근(life histories)에 속한다. 주제가 특정한 교육과정이나 학교급의 수업에 집중하여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수업을 실천하였는가' 등을 규명한다면, 생애사는 교사나 학생의 생애 전반을 통해 '국어 수업의 경험이 주체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Texas Historical Commission, 2004: 2-3). 이 두 범주는 하나의 수업 경험을 구성하는 대상과 주체라는 측면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연구의 목적과 초점, 분석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 1. 국어교육의 실천 양상에 대한 주제사적 접근

국어교육 구술사에 대한 주제사적 접근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어느 시대나 교육과정기의 국어교육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고 분석할 것인가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연구는 대체로 교육과정기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교육과정기는 서로 다른 교육적 지향점을 지닌다. 예컨대 1차~3차 교육과정기는 생활중심주의와 아동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속하며, 4차와 5차 교육과정기는 지식의 구조와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6차와 7차 교육과정기는 교육과정의 초점을 지식 중심에서 과정 중심, 활동 중심으로 옮겨 내용 요소를 체계화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오랜 기간 지속된 국정 교과서의 체제를 마감하고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검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의 선택과 그에 따른 수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구분된다.

교육과정의 변천은 국어 수업 변화의 거시적 배경이 된다. 특정 교육과정기의 지향점이나 특성을 당시 교육의 주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실행했는지, 혹은 그러한 교육적 지향이나 특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중시했던 수업의 목표나 교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기의 특성이 당대 국어 수업에 즉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는 교사 개인의 교육적 신념과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학교의 관행과 문화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변화와 실제 수업 사이에는 시차와 굴절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술사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를 섬세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때 당대의 교육 실천을 증언할 제보자를 섭외하는 것이 관건인 구술사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1차 교육과정기를 포함한 경험 중심 교육과정기와 같이 현재로부터 먼 시기의 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학교급’이다. 국어 수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실천의 맥락과 특성은 다르다. 초등학교 국어 수업은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학급 담임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며, 전통적으로 ‘바른 자세로 말하기’, ‘알맞게 띄어 읽기’, ‘글자나 단어 쓰기’ 등 기초 문해력에 해당하는 기능과 태도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특성은 교과서 편찬사에서도 드러나는데, 시기에 따라 ‘국어’뿐만 아니라 ‘한글 첫걸음’, ‘국어 활동’,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등 다양한 명칭의 교과서가 분책되거나 통합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국어 수업에 관한 구술 탐구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학급 경영이라는 범교과적 틀 안에서 기초 학습 훈련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교과 전담 체제에 기반하여 전문적인 국어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와 차별화된다. 특히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국어 수업의 범위와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분화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고등학교 국어 수업은 공통 과목으로서 ‘국어’와 함께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에 따라 수업의 성격 또한 문학 수업, 화법 수업, 문법 수업, 독서 수업, 작문 수업, 매체 수업 등으로 전문화·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적 목표와 떼어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입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수업의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되거나 제한되었는지, 그리고 입시 준비와 전인적 국어 능력 함양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실제 수업이 어떠한 갈등과 타협을 겪으며 전개되었는지는 고등학교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sup>3)</sup>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국어교육의 ‘영역’이나 ‘과목’이다. 이는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선택이다. 가장 일반적 층위는 ‘국어 수업’ 그 자체이다. 일차적으로 국어 수업이란, 시간표상 ‘국어’로 명명되

3) 20세기의 중등학교 국어교육이 입시 준비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점은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교실 분위기를 체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당시의 국어 교실을 직접 경험했던 교사나 학생의 증언만큼 효과적인 근거는 없으리라고 본다. 다음의 구술 자료는 초창기의 국어교육에서 주입식 수업 위주, 지필 시험 위주의 방식이 강조되었다는 점, 평가의 기준과 방식의 기준이 교육과정이나 출판사의 문제집이나 참고서였다는 점 등을 잘 보여 준다.

“그때는 듣기·말하기 같은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 말하기는 더군다나 없지. 요즘처럼 듣기평가 같은 것도 없었고. 그때 무조건 주입식. 교과서에 나온 걸로 분석하고, 대체로 시험 위주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기 좋으나, 애들을 측정하기에 어떤 문제가 좋으나’에 관심이 많았지. 지금 와서 보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 기준대로 평가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맞춰) 가야 했어. 당시엔 출판사마다 문제집이 있었고, ‘국어 문제는 어느 출판사가 낫다’ 이런 게 있었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출제 방향 제시 같은 것도, 오히려 문제집을 많이 신경 썼어요.”

-제2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5. 8. 18. 구술자 자택, 구술자: 윤○명, 면담자: 연구자)

거나 ‘국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일컫는다. 그러나 구술사 연구에서의 국어 수업은 과목의 이름이나 특정 교과서에 기반한 수업을 넘어선다. 이때의 국어 수업은 궁극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한 학기, 일 년, 또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영역의 다양한 단원을 가르치며 축적한 수업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다양한 영역의 수업 경험이 교사의 인식에서 상호작용하며 뒤섞인 종합적인 경험으로서의 국어 수업이다. 이러한 총체적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타 교과와 구별되는 국어 수업만의 고유한 실천적 특수성을 규명해 낼 수 있다.

물론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이나 과목의 수업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과의 영역과 과목은 고유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지니므로 그 실천의 양상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문학 수업은 학습자의 정의적 성장을 고려한 제재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반면, 문법 수업에서는 문법 용어나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교육 내용이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특정한 학습 목표 또는 단원의 수업’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연구 역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단원의 수업 경험은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높은 실효성을 지닌다.<sup>4)</sup>

4) 다음의 구술 자료는, 초창기 국어 교사들이 국어과의 각 영역이 지닌 목표와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때는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 중심 수업에 일임했다고나 할까요? 더군다나 언어 소통 부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부분 수업은 절대적으로 수업 과정을 원용해 가지고 한 적이 거의 없습시다. 대개 문학 부분은 대표 수업이라든지, 공개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수업하고는 조금 구별돼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도 학생들의 발표 생각을 나타내는 소통 중심 수행평가 중심 수업이 되지 못했다는 거. 다양한 교수학습을 원용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조금 부끄럽습시다. 그리고 지도서에도 지금처럼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시다.”

-제2~3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5. 8. 25. 경기도 성남시, 구술자: 박○서, 면담자: 연구자)

이상의 ‘시기’, ‘학교급’, ‘영역 및 과목’이라는 세 가지 설계 요소는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다양한 층위의 연구 주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함으로써, 막연했던 국어교육의 역사를 구체적 실천의 현장으로 소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교육과정기(시기) 중학교(학교급) 국어 수업에서 라디오나 신문 등을 활용한 교육 경험(영역 및 교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국어 수업에서 매체 관련 교수·학습 양상에 대한 구술사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체계적인 매체 교육과 달리, 당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교사들이 실용적 목적이나 시사적 필요에 의해 라디오나 신문 등의 매체를 어떻게 수업에 끌어들이었는지를 밝히는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정진석, 2010: 308-319). 반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이 현장에 미친 영향력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두고(시기), 초등학교(학교급)의 ‘쓰기’ 영역(영역 및 교과)을 중심으로 당시의 수업 실천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제4차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쓰기 수업의 실제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구술사 연구’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 중심의 쓰기 지도가 주를 이루었던 당시의 관행 속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한 지식의 구조나 탐구 학습이 실제 쓰기 지도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 교사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국어교육의 실천 주체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에 관한 기술’로, 한 개인이 살아온 생애의 과정을 내면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을 아울러 서사화하며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 자신의 개인적 삶의 여정을 공격적인 맥락과 연결하여 이야기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며 그 결과는 참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김영순·염지숙·김기홍 외, 2023:

23-24).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 구술사에서 생애사적 접근은 국어 수업이라는 공적 영역과 교사나 학생 개인의 사적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교육 주체들이 겪은 경험의 심층적 의미를 복원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생애사적 접근의 의의는 그간 역사 서술에서 소외된 목소리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교육사 분야는 구술사 연구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교사, 학습자, 학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구술의 형식으로 자료화하고 당대의 교육 현실에 접근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중 교사는 학습자와 더불어 수업의 핵심 주체로서, 그가 지닌 교과와 애호와 관점, 전문성은 수업의 방향과 수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어 교사는 자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한 경험으로 인해 학습자, 학부모 등 다른 주체보다 국어 수업과 관련된 기억이 풍부하고 이를 구술하고자 하는 동기도 높다. 따라서 국어 교사의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일대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변화하는 교육 정책 및 사회 현상과 호흡하며 국어 수업을 실천해 온 과정과 그 속에서의 시행착오, 그리고 국어 교사로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교육자로서의 성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룬다.

국어 교사는 국어 교과나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라는 점에서 그 실체가 단일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상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국어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특정한 시간과 수업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이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교과 전문성에 기반한 교사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국어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 시기부터 지향하는 전문성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교과 아래로 여러 과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어 교사의 정체성은 문학 교사, 문법 교사, 독서 교사, 작문 교사를 포괄하는 정체성이다. 국어 교사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은 국어 수업의 교수자인 교사의 다양한 정체성과 목소리에 공적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현실과 지향점을 재현한, 국어 교사의 다채롭고 생생한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5)</sup>

다음으로, 학습자의 생애사 연구는 국어 수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국어교육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학습자의 기억 속에 남은 국어 수업은 지식의 습득 과정을 넘어서 한 인간이 언어적 주체로 성장하는 궤적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의 특정한 국어 수업이나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책을 애호하고 즐겨 읽는 ‘독서인’으로 성장하거나, 글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주체로 변화시켰던 경험에 대한 구술은 국어교육이 학습자의 삶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 주는 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애사 연구는 국어교육이나 수업 현장에서 소수이거나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국어교육사가 주로 제도의 변천이나 주류 남성 학자 및 관료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면, 구술사는 그 이면에 존재했던 다양한 주체들을

---

5) 다음의 구술 자료에는 구술자가 국어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당시의 ‘국어 교사’ 정체성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자료이다.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다는 아니지만 저는 사립이었고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략)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도) 성직자 같은 태도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 첫 월급을 받았는데 좀 놀랐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받지?’ 그 정도로 제가 (학교를) 사랑했어요. (중략) 그렇다고 내가 무슨 훌륭한 교사 그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기본 마음 바탕이 그런 사람들이 교사들 중에 좀 있었다고 해요. 학부모들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중략)… 국어 교과라기보다 교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 중간에 ‘교단’도 없었거든요. 예전엔 단(상)이 있었는데 그 (교사) 권위다 해서 교단도 없애고 …(중략)…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닌데. 이걸 아이들한테 안 좋다’라는 생각. (중략) 사제시간이라는 건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학생을 위한 거라고 봅니다.”

-제2~3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5. 8. 26. 서울시 종로구, 구술자: 최○희, 면담자: 연구자)

호명한다. 예컨대 남성 교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국어교육 초창기에 여성 교사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과 성취, 지역 교육에 헌신하며 독자적인 수업 세계를 구축해 온 지역 토박이 국어 교사의 삶, 또는 교과 연구회나 실천 단체에서 동료들과 함께 국어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헌신했던 교사들의 연대기가 이에 해당한다.<sup>6)</sup> 또한 학습자 측면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을 제때 밟지 못하고 뒤늦은 나이에 한글을 깨치며 문학을 생활화하게 된 만학도의 삶 등은 제도권 교육의 경계에 있던 이들의 치열한 학습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국어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록이 된다.

## V.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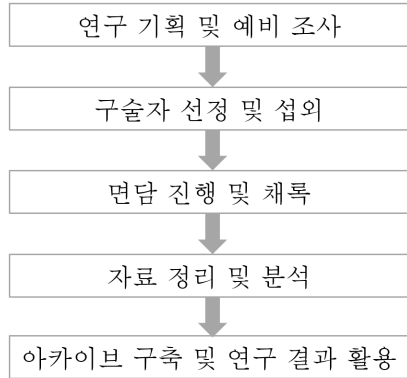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는 구술 자료가 과거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관

- 
- 6) 다음의 구술 자료는, 초창기 국어교육에서 경북 지역 토박이 국어 교사가 지역 특유의 문화를 어떻게 접하고 그 변화 양태를 어떻게 목격했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경험담이다. “제가 65년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가지고, 68년 3월 1일자로 저쪽 봉화, ‘강원남도’로 갑니다. 경상북도인데 강원남도(라고 농담할 정도로 먼) 발령을 받았어요. 봉화. 그 가니까 그 교장 쌤은 어쩐지 “사대 때가 뭉텨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술이나 마시고 마지막이나 하고 퇴폐됐으니 너 3학년 담임을 해라” (하셨어요). …(중략)… 그런데 거기 가니까 업무가 아무튼 (국어니까) 도서관도 맡아라, 관리(해라), 그리고 용변을 맡아라 해요. (중략) 수업계는 수학과가 하고 과학과가 하든지 하지 국어과한테 수업계 주는 거 나는 처음 봤어요. …(중략)… 초중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이고 이래 가지고 주로 아까 중3 담임을 했기 때문에 안동이라든가 반공 용변대회 이래서 용변 행사가 많았습니다. …(중략)… 국민정신, 국어 교과서를 통한 국민정신, 나라 사랑, 용변을 통해 가지고 나라 사랑 이걸 (강조)했어요…

- 제1~3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5. 11. 15. 대구시 동구, 구술자: 김○효 외 5인, 면담자: 연구자)

점에 기초한다.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구술사 연구의 일반적 절차는 ‘예비 단계’, ‘문제의식의 구체화’, ‘본 조사’, ‘녹취 작업’, ‘구술 자료 독서 및 분석’, ‘학술적·역사적 글쓰기’로 구성된다(김귀옥, 2014: 149-150).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도 이러한 흐름을



〈그림 1〉 구술사 연구의 절차

따르되, 교육과정, 교과서 등 공식적 문헌 자료와의 상호 검증이 중요한 국어교육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의 절차를 〈그림 1〉과 같이 ‘연구 기획 및 예비 조사, 구술자 선정 및 섭외, 면담 진행 및 채록, 자료 정리 및 분석,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 결과의 활용’의 다섯 단계로 구조화할 수 있다.

## 1. 연구 기획 및 예비 조사

연구의 첫 단계는 명확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연구 주제와 범위를 설정하고, 예비 조사를 통해 구술 채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는 ‘기록된 문헌’과 ‘기억된 실천’ 사이의 간극을 포착하는 데서 출발한다. 문헌으로 기록된 당대 국어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언제나 교사의 실제 국어 수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어 수업은 일종의 교육적 복잡계로서, 학술 담론이나 교육과정에 반영된 이념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교육적 신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역량, 그리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과 제도적 맥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의 역동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기획이 필수적이다.

먼저,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관련 문헌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연구자는 1차 교육과정기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기 등과 같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당시의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지도안, 학술 단행본이나 논문 등의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배경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기초 질문’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예컨대, 제1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이 생활 중심주의를 지향한다는 교육과정 문서의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국어 교사가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각 글의 서식, 문법의 규범, 문학 작품의 낭독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조가 국어 수업으로 실행되는 양상은 문헌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생성된 기초 질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수행한다. 본 면담에 앞서 소수의 구술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기억의 공백이나 진술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반부터 교직에 몸담았던 구술자와의 예비 면담을 통해 영화 시나리오나 희곡과 같은 새로운 제재가 교과서에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이를 소설처럼 내용 파악 위주로 가르쳤던 경험이나, 과도한 교과서 분량과 입시 위주의 진도 압박 때문에 실연(acting)과 같은 체험 활동 없이 텍스트만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교과서의 이상적인 편찬 의도가 당시의 수업 환경과 부딪히며 어떻게 변용되고 타협했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실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예비 조사 결과는 질문지를 더욱 정교화

7) [면담자] 근데 그 이게 영화나 시나리오인데 이 영화나 시나리오는 기억은 나시는? / [구술자] 네, 기억은 나는데 소설이 읽듯이 내용 파악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때 영화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어. 시나리오에 대한 용어. 페이드 오프니 페이드 인이니 용어들이나... / [면담자] 네, 맞아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 [구술자] 용어들이나 파악하지. 연극도 그래. 내가 가서 제일 처음에 그 연극반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하고, 국어교육 전문가 집단과의 숙의를 거쳐 연구의 방향을 예각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구술 채록과 같이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다루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연구 계획의 윤리적 타당성을 승인받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실제 연구 수행에 앞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 익명성 보장 방안,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활용 범위와 폐기 원칙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책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학문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 2. 구술자 선정 및 섭외

구술사 연구의 성패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구술자를 선정하는 데 달려 있다. 구술사 연구는 전적으로 구술자의 기억과 보고에 의존한다는

---

그래도 연극이 통영도 연극이 센 데인데 별로 교과 시간에는 연극에 대해서 특별히 (안 했다). 왜 그러나 하면 연극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 [면담자] 네, 시간이... / [구술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러고 교과서가 분량이 너무 많아. 늘 수업을 하면서 보면... / [면담자] 예, 그렇죠. / [구술자] 입시가 아니면은 3분의 2밖에 못하고 3분의 1은 안 가르치는 거죠. 모든 교과가 다 분량에 헤맬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나오면 그걸 같이 영화관에도 가고 연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짝는 그런 기구는 없으니까 안 됐지만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이진 소설 읽듯이 읽고 넘어가. 그래야 진도가 맞지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맞아. 교과서 편찬 의도는 좋은데 이 분량을 너무 많이 잡아. 내가 연극 반도 맡았고 그때는 또 웅변을 중시했어요. 웅변반도 맡아보기도 하고, 내가 제일 처음 가자마자 맡은 게 웅변반인데 빗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깐 했죠.

- 제1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4. 11. 14. 구술자 자택, 구술자: 정○박, 면담자: 연구자)

점에서, 당대의 실상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대적 국어교육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국어 수업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제보자를 섭외하는 것은 연구의 시급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 이 시기의 교사들은 대체로 193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나 현재 구순(九旬)을 전후한 고령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생존 기간 내에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시기의 국어교육 실천사는 영원한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당시의 수업은 60~70년 전의 일로, 구술자의 기억은 선명성이나 정확도 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술자 선정 과정에서 장시간의 면담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과거의 경험을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는 인지적 명료성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단일 구술자의 기억에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동일 시기와 지역에서 근무한 복수의 구술자를 확보하여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표집 집단을 구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술자 집단을 구성할 때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인배해야 한다. 이러한 변인에는 남성과 여성 등의 성별, 대도시와 중소 도시 및 농어촌을 포괄하는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학교급, 그리고 의사소통·문법·문학 등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전문성 등이 있다. 또한 초창기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가 교육을 받은 기관인 사범대학, 교사양성소, 또는 출신 대학교 등도 중요한 변인으로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술자 집단의 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배경이나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변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여성 교사, 초등학교 교사, 교사양성소 출신 교사 등 특정 변인을 특화하여 선정함으로써, 해당 구술자 개인이나 집단이 실천했던 국어 수업이나 생애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구술자 섭외는 사범대나 교대의 학과나 동문회, 퇴직 교원 단체, 지역 교육청의 협조, 관련 학회 혹은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눈덩이 표

집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적절한 구술자가 선정되면 연구자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구술 자료가 국어교육사 연구에 이바지할 학술적 가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고령의 구술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예의를 갖추어 섭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 관계는 향후 이어질 면담에서 구술자가 마음을 열고 내밀한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거나, 수기로 작성한 국어 수업 관련 자료 등을 흔쾌히 제공하게 해 주는 정서적 토대가 된다.

### 3. 면담 진행 및 채록

구술 채록은 구술 기록의 ‘생산’과 ‘실행’ 단계에 해당하며, 연구자는 사전 준비를 통해 면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 면담 장소는 구술자가 심리적 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택이나 조용한 독립된 공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소음이나 방해 요소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음질의 녹음기와 영상 촬영 장비를 준비하고, 구술자가 기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담 전에는 ‘구술 정보 소개(oral label)’를 통해 면담의 일시, 장소, 참여자, 주제 등을 명확히 녹음하여 기록의 맥락을 분명히 한다(Texas Historical Commission, 2004: 12).

면담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 마련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구술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반(半)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취한다. 연구자는 폐쇄적인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 교사의 재직 중 기억에 남는 국어 수업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포괄적 질문에서 시작하여, 구술자의 답변에 따라 “그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신 수업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만드셨고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와 같은 심층 질문으로 나아가는 질문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때 연구자는 경청과 공감의 태도

를 견지하며 구술자가 충분히 기억을 탐색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에서는 자료를 활용한 회상 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50년 이상 지난 과거의 기억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은 구술자에게도 어려운 과제이므로, 연구자는 당시 사용했던 교과서, 참고서, 수업 자료 등을 매개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면 구술자의 잠재된 기억을 자극하여 “아, 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보니 생각나는 데…….”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을 끌어낼 수 있다.<sup>8)</sup> 이는 국어 수업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구술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기제가 된다.

모든 면담 과정은 구술자의 동의하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녹음 외에도 면담 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의 맥락을 포착해야 한다. 구술자의 표정, 제스처, 침묵, 망설임, 감정의 변화 등은 단순한 음성 기록에는 담기지 않는 비언어적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는 추후 구술 텍스트를 해석할 때 발화의 진의나 강조점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연구자는 면담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면담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특이 사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 4. 자료 정리 및 분석

채록된 구술 자료는 체계적인 정리 과정을 거쳐 연구할 수 있는 형태의

---

8) [면담자2] 1956년부터 사용된 교과서입니다. / [구술자] 국정교과서죠? / [면담자] 네 맞습니다. 3-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큰바위 얼굴 / [구술자] 네 큰바위 얼굴, 가르친 기억이 기억나네요. 은촛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큰 바위 얼굴은 나도 좋아하고 / [구술자] 이게 그 당시 저희가 이리 꽤 있었나 이리 잘 꽤 있지는 않았는데 / [면담자] 이게 지금 은촛대 은촛대가 아마 장발장 이야기일 거 같고, 이게 큰 바위 얼굴.

- 제1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4. 11. 14. 구술자 자택, 구술자: 정○박, 면담자: 연구자)

텍스트로 변환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녹음된 구술 내용을 문자로 옮기는 전사(轉寫)이다. 전사는 구술자의 발화 내용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발화 내용뿐만 아니라 억양, 어조, 씬, 웃음, 한숨 등 비언어적·준언어적 요소까지 괄호나 기호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기한다. 이렇게 작성된 전사본은 반드시 구술자에게 보여 주어 검독을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오타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높인다.

자료 정리가 끝나면 수집된 구술 자료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에서 분석의 핵심은 교차 검증과 맥락화이다. 연구자는 구술 자료를 당시의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수업 자료 등 기존 문헌 자료와 비교·대조하여 사실성을 검증해야 한다. 구술자의 기억이 문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문헌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불일치가 발생하는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간극과 불일치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변용되거나 저항에 부딪혔는지를 보여 주는 실천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서사적 탐구의 방법으로 구술 내용에 담긴 의미 구조를 해석한다. 이는 구술자가 경험한 국어 수업을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그 사건이 구술자의 교육관과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1958년부터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구술자는 국어 교과서 중 문학이나 문법 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어 수업을 진행했다고 구술하고 있다.

[구술자] 이희승 선생의 책으로 문법론을, 오후에는 최현배 선생님의 문법론을 배웠는데 오전에 배웠던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오후에 질문을 해서 선생님께 골탕도 먹이고 아웅다웅했는데 그때 배운 것이 뒤에 이제 문교부에서 그 통일한 그 말본 문법 체계 할 때 그 두 선생님의 체계가

조합이 됐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어.

[면담자]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현배 선생님께 배웠을 때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로…….

[구술자] 교과서로 배우고.

[면담자] 근데 그게 우리말본의 축약본이었군요.

[구술자] 그 내용 보니까 설명이 똑같아요. … (중략) … 그때만 해도 국어교육론 하는 게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하던 국어교육론에 크게 벗어나지를 이론적으로 못한 것 같아. 물론 그때만 해도 그 문교부 편수관들이 미국 쪽에 유학 내지 시찰하고 와 가지고 소위 학생 중심 수업 교육과정도 짜고 했습니다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국어교육론에는 그런 게 별로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큰 도움은 못 받았어.

- 제1차 교육과정기 교사 구술 자료

(2025. 11. 25. 구술자 자택, 구술자: 정○박, 면담자: 연구자)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충실하지 않는 수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구성된 교사교육의 교육과정과 의사소통 중심의 미국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괴리가 놓여 있다. 이러한 해석적 접근을 통해 문헌 연구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실천된 국어 교육’의 실체와 그 이면의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범주화하고 구조화하여 기술된다. 연구자는 방대한 구술 자료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나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실천사의 흐름을 서술한다. 이때 참여자의 구술을 적절히 인용하여 현장감을 살리되, 연구자의 해석과 논평을 덧붙여 학술적 논의로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기술 과정은 개별 교사의 파편화된 경험을 모아 국어교육의 거시적 흐름과 미시적 실천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역사 서술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 5.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 결과의 활용

이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수집·분석된 구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후속 연구와 교육의 자산으로 삼는 ‘아카이브 구축’이다. 구술 자료는 일회성 연구로 소모되기에는 그 가치가 매우 크므로,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수집된 음성 파일, 영상 파일, 전사본, 수집된 사진 자료 등을 <구술 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23)과 같은 표준화된 형식에 맞춰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이때 ‘프로젝트-컬렉션-면담자-구술자-자료’의 위계 구조를 설정하고, 검색과 활용이 편리하도록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	전체
■ 컬렉션	<input type="radio"/> 1차 <input type="radio"/> 2차 <input type="radio"/> 3차	
■ 면담자	전체	
■ 구술자	<input type="radio"/> 구술자 전거데이터	전체
	<input type="radio"/> 구술정보 메타데이터	전체
■ 구술 자료	<input type="radio"/> 음성녹음 메타데이터	전체
	<input type="radio"/> 녹취문 메타데이터	전체
	<input type="radio"/> 기타	전체

〈그림 2〉 구술 자료 메타데이터 형식 및 아카이브 형식(안)

아카이브 구축 시 특히 중요한 것은 메타데이터의 충실한 작성이다. 과일명이나 낱자와 함께 구술자의 상세한 교직 경력(근무 시기, 지역, 학교명, 담당 과목 등), 면담의 주요 주제와 키워드, 내용 요약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자료의 성격과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술 자료 중 음성 녹음 메타데이터와 녹취문 메타데이터에는 ‘목차’ 항목이 포함된다. 목차의 구조 및 세부 목차는 실제 구술 채록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계획 단계에서 세운 기초 질문의 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목차의 대분류는 ‘1~3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향 및 내용’, ‘1~3차 교육과정기 국어 수업의 인식 및 지향’, ‘1~3차 교육과정기 국어 수업의 실천 양상’으로 세울 수 있다. 구술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위와 같이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하므로, 향후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시 높은 호환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와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자료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 ‘관내 열람’, ‘비공개’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성과 구술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 VI. 목소리로 다시 쓰는 국어교육 실천사를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에 제한된 국어교육의 역사를, 교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천의 역사로 다시 쓰는 노력을 위한 시론이다. 국어교육사 연구는 그동안 교육과정과 교과서라는 거시적 설계도에 집중하였으나 그 설계도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업을 통해 어떻게 실행되고 변용되었는지를 충분히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은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과 성격을 규명하고, 주제사적 접근과 생애사적 접근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연구 기획부터 아카이브 구축에 이르는 방법론적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이는 급속한 속도로 잊혀져 가는 초창

기 국어교육의 실천적 경험을 복원하여, 텍스트 중심의 역사를 넘어선 입체적 국어교육사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의 과정이었다.

‘목소리로 다시 쓰는 역사’는 국어교육학이 관념적인 지식 체계를 넘어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을 다루는 학문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공식적인 역사 기술에서 배제되었던 교사와 학습자를 국어교육 역사의 능동적 주체로 호명하고, 그들의 사적인 기억에 공적 위상을 부여하는 작업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사들의 육성을 통해 드러난 수업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성취와 성장의 서사는 ‘기획된 교육’과 ‘실천된 교육’ 사이의 틈새를 메우며, 우리가 알고 있던 국어교육의 모습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복원은 현재의 국어 수업을 성찰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구술 채록을 통해 발굴된 선배 교사들의 지혜와 시행착오의 기록은 오늘날 교사들이 마주한 난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실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현재의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국어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목소리로 기록된 과거는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전망하는 원천이 된다.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대적 국어교육의 기원인 초창기 국어 수업을 증언해 줄 고령의 제보자들이 간직한 기억은 이 순간에도 계속 소멸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의 목소리를 채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다양한 시기, 지역, 영역에 걸쳐 구술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국어교육사의 서술은 문헌의 기록에 실천의 목소리를 더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술사 연구 방법론의 이론적·실천적 정교화는 물론, 국어교육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독자적 특성

과 차별화된 가치도 보다 명료해질 것으로 생각한다.<sup>9)</sup> 초창기 국어교육 실천사를 복원하기 위한 이 시론적 연구를 기점으로, 국어교육에 대한 실천적·역사적·학문적 안목이 한층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6.01.31. 투고되었으며, 2026.02.08. 심사가 시작되어 2026.03.07. 심사가 종료되었음.

---

9) 심사 과정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보다 정밀하고 풍부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논문의 분량 제약, 연구 초점의 혼선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제안들을 이 논문에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다. 심사위원들의 고견은 후속 연구에서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성과로 도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석(2009), 「시교육 정전 체계의 분석과 재구성」,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석(2013), 「근대 시교육사 서술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4(2), 195-235.
- 강연진(2020), 「여성 노인의 구술을 통해 본 1930년대 전통적 초기 문식성 교육의 한 국면」, 『한국어문교육』 31(2), 77-110.
- 국립중앙도서관(2023),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권성기(2010), 「일제말기 초등교육에 관한 구술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주(2013), 「읽기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 『독서연구』 29, 35-95.
- 김귀옥(2014),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광주: 도서출판 한울.
- 김영순·염지숙·김기홍·남혜경·박봉수·박옥현·배경임·신희정·정경희·허숙·황혜영  
(2023), 『이야기의 사회과학: 생애사와 내러티브 연구』, 하남: 패러다임북.
- 김정은(2008), 「초등 여교사의 교직 사회화과정에 관한 구술사적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원(2011), 「시교육사 서술의 관점과 방향」, 『문학교육학』 35, 121-142.
- 문경숙(2017), 「이강숙의 삶과 음악교육관에 대한 역사적 조망」, 『음악교육연구』 46(2), 51-79.
- 민현식·윤여탁·김종철·신현숙·서혁·기준성·김양희·김영란·김혜정·김호정·남민우·박건숙·서명희·윤금선·이상일·이상호·이주영·조희정·주세형·최영란·허재영·홍은실·황혜진(2007),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봉배(1987), 『국어교육전사』 상,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봉배(1997ㄱ), 『국어교육전사』 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봉배(1997ㄴ), 『국어교육전사』 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진섭(2008), 「일제 말기 교사양성 교육에 대한 구술사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수(2005),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 자서전1: 어민편』, 서울: 소화.
- 우현용(2009),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수정(2009), 「1930년대 식민지 초등학교 교육에 관한 구술사적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호식(2015), 『자서전』, 서울: 민음사.
- 윤여탁·김광해·신현숙·민현식·김창원·최영환·허재영·윤금선·이지영·김혜정·조희정·김양희(2006), 『국어교육 100년사』(I, I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택림·함한희(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상일(2016), 「광복 후 고전문학교육의 70년 도정과 나아갈 길: 고등학교급의 교육과정과 수업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0, 71-106.
- 이웅백(1975), 『국어교육사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이웅백(1988), 『(속)국어교육사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장미정(2011), 「환경운동가의 정체성 변화를 통해 본 환경교육운동가 형성과정: 환경교육운동가의 기억과 구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효주(2009), 「1960년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란(2007), 「1950년대 초등교육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경(2022), 『기억의 기록으로 쓰는 구술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재찬(1996), 「현대시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석(2010), 「국어교육계의 초기 매체교육 연구」, 『국어교육』 133, 289-338.
- 정진석·정대영(2021), 「노년 세대를 위한 자서전 제작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 174, 35-72.
- 정진화(2013), 「교사주도 학교개혁 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경(2017), 「구술사: 기록에서 역사로」, 한국구술사연구회(편),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II: 관리와 활용』, 서울: 선인.
- 한국어교육학회 편찬위원회 편(2005), 『국어교육론』 I · II · III, 서울: 한국문화사.
- 허재영(2013), 「교수요목기의 화법 교육 연구」, 『어문논총』 58, 165-189.
- Texas Historical Commission(2004. 2.), Fundamentals of oral history Texas preservation guidelines, Austin: Texas Historical Commission. 검색일자 2026. 1. 25., 사이트 주소 <https://www.thc.texas.gov/public/upload/publications/OralHistory.pdf>.

## 국어교육 구술사 연구를 위한 시론

이상일·김승현·양수연·이관희

이지원·조진수·호창수·정진석

본 연구는 국어교육사 연구에서 문헌 중심 역사 서술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고 국어교육 실천의 생생한 현실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으로서 구술사 연구를 제안하였다. ‘기획된 국어교육’의 거시사와 ‘실천된 국어교육’의 미시사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본고는 구술사 연구의 필요성과 특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연구 범위를 ‘국어교육의 실천 양상에 대한 주제사적 접근’과 ‘국어교육의 실천 주체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의 수행 절차를 ‘연구 기획 및 예비 조사, 구술자 선정 및 섭외, 면담 진행 및 채록, 자료 정리 및 분석,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 결과의 활용’의 다섯 단계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망각의 저편으로 잊혀져 가는 제1~3차 교육과정기 국어교육의 실천사를 구술 채록을 통해 복원하는 구술사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사, 구술사, 국어교육 실천사, 주제사, 생애사, 구술 채록, 아카이브

## 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n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Lee Sangil · Kim Seunghyun · Yang Sooyeon  
Lee Kwanhee · Lee Jeewon · Jo Jinsu  
Ho Changsu · Jeong JinSeok

This study proposes oral history research as a methodological alternative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document-focused histor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toring the vivid reality of educational practice. To bridge the gap between “planned” and “practiced” educ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oral history in linking written records to actual practice. The study divides the research scope into two categories: a “topical history approach” which focuses on specific educational activities, and a “life history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teachers and learners. Furthermore, it organizes the research process into five steps, from planning to archiving. This study establish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writing a practical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restoring the voices of marginalized people in the field.

**KEYWORDS**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ral history,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actice, topical history, life history, oral recording, archive